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가능성 제기

정인영 연구원

■ 트로이카는 잠정보고서를 통해 그리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3월 4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Der Spiegel지에 따르면 EU, ECB, IMF로 구성된 그리스 구제금융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2015년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구제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이에 앞서 Jean-Claude Juncker 유로그룹 의장은 지난 2월 21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후에도 그리스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3차 구제금융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현재는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또한 독일 정부는 2월 27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을 승인하였지만, 내부적으로 이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어 이번 트로이카 보고서의 3차 구제금융 관련 부분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3월 5일 그리스 현지 언론은 그리스 정부가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고 보도함.

- 민간채권단은 오는 3월 8일까지 국채교환 참여 여부를 전달해야 하며, 그리스 정부는 참여의사를 밝힌 채권단 비율이 75%를 넘으면 국채교환을 실행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약 90%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제금융협회(IIF)는 3월 5일 성명을 통해 BNP Paribas, Deutsche Bank, National Bank of Greece를 비롯한 12개 주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 국채교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함.
- 또한 3월 6일 그리스 정부 발표에 의하면 6개 주요 국내 은행과 8~9개 연기금이 국채교환에 참여한다고 밝힘.

- 그리스 정부는 이번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 성공을 낙관하지만, 참여율이 90%를 밑돌 경우 집단 행동조항(CACs) 적용을 고려한다는 방침임.
- 국제금융협회(IIF) 역시 3월 6일 내부분서를 통해 그리스가 무질서한 디폴트에 빠질 경우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약 1조 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경고하며 민간채권단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함.
-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3월 9일 열릴 유럽정상회의에서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지급이 최종 승인될 예정임.

(WSJ, FT 등, 3/5~6)